



협회 부회장 이길영
〈대흥조경대표〉

“산림 휴양 및
수목원을 겸한
조경 공원화를 계획”

“2006년에는 서부 경남지역 조경수 유통 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성공적으로 완공시켰으며 지역사회에서는 1982년부터 진주 축석로터리 클럽에 가입 회장과 진주지역 15개클럽 대표를 맡아 진주 청소년 돕기와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 돕기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대흥조경을 찾아서

김해웅 글·사진

산지 개발 이용의 극대화, 임야를 훼손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지 않고 멋진 조경수 농장을 개발한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이면서 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임야의 효율적 이용을 성공시킨 모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조경수 농장을 경남 진주시에서 만나 보게 되었다.

경남 진주시 하면 역사의 고장이요, 교육의 고장이며 옛 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로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고장이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진주를 가려면 경부선 철도나 고속도로를 이용 부산을 거의 다가서 삼랑진에서 갈려져 가는 경전선 철도를 이용하거나 경부 고속도로를 거쳐 구마 고속도로로 다시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그야말로 빙 돌아가야만 했던 지루했던 여행길이 지금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빠르고 쾌적한 여행길이 되었다.

진주에는 경상대학을 비롯하여 진주산업대학, 진주교육대학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 일찍이 학문의 발달은 물론 진주성내의 멋진 정원과 건물들의 영향을 받아서인가 조경수 재배와 조경업의 효시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조경업이 성업중인 진주지역 중에서도 일찍이 1962년부터 조경수 재배농장을 시작한 대흥조경의 이길영 현 조경수 협회 부회장의 농장을 찾았다.

이길영 본회 부회장의 대홍조경은 진주시청에서 남강 줄기를 따라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약54ha(약16만평)가 한 골짜기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1개 단지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형 농장이다.

농장일대는 진주 지역 대부분의 산림이 그렇듯이 해발 100m내외의 나지막한 산들이 작달막하고 모질게 자란 소나무 단순림으로 채워진 척박한 토양이다.

농장은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폭이 20~50m에 길이1.5km정도인 좁은 골짜기를 형성하는 평탄지가 있지만 대부분 경사 15° 이상 30~40°가 넘는 해발 100m 내외의 산지에 조성된 농장이다.

처음 입구부터 농장 관리사가 있는 평지를 따라 조성된 조경수 재배지는 대부분 농장과 비슷한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하지만 관리사에서부터 무언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조경수 농장의 관리사는 보통 조립식 건물이거나 최신의 멋을 들인 서양식 전원 주택형이 많지만 이곳은 단층 한옥식 건물이다. 그뿐인가 우선 농장구경하기 전에 차 한 잔을 꼭 하고 가자는데 이차가 예사롭지가 않다. 보통 커피나 티백녹차 이거나, 음료수 대접이 대부분 이지만 전통다기에 끓여낸 차 맛이 은은하면서 일반 녹차나 수입 꽃차와는 판이하다.

전통차를 좋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을 꼭 마신다는 이길영 부회장은 그래서 손수 백목련 꽃잎을 건조시켜 차를 만들었는데 맛과 효능이 뛰어나 단다.

얇은 향과 잡내음이 없어 권하는 맛에 대 여섯 잔을 마시고 농장구경에 나섰다.

임야에 조성된 농장이라 4륜구동차가 아니면 올라가기 힘든 폭 2~3m 경사 15~30°의 임도와 작업로가 갈지자(之)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급커브 길이 많아 여간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만든 길이 4통8달 거미줄 같이 둘러 있어 기계화에 의한 식재, 굴취, 거



▲ 농장전경



▲ 농장전경



▲ 농장전경

름주기, 병충해 방제등 도로가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여간 편리하지가 않다 한다. 급경사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만 지금같은 인부난에는 더 없이 편리하고 능률적이란다.

이곳 대홍조경의 덕오리 농장은 이길영부회장이 20대 초반인 1962년에 임야와 계곡부의 농지를 구입하여 산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임도나 작업로를 개설하고 시대에 따라서 1970년대에 밤나무 단지도 조성 해보고 하였으나 목표는 산림 휴양 및 수목원을 겸한 조경 공원화를 계획하고 꾸준히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는 곳이다.

이길영부회장은 지금은 이곳 농장의 관리와 대홍조경회사의 조경 공사업에 전념하지만 본래의 직업은 조경업과 먼 제조업 그것도 대형 공작기계인 선반을 제조 판매하였던 공업인 이었다. 부친과 형제분들이 모두 진주에서는 알아주는 제조업에 종사 하시는 재력가 집안으로 공장에서 기계제작만 하다 보니 자연과 벗하고 전원생활이 하고 싶어져서 일찍이 임야를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하여 많은 투자와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 5년 전부터 제조업 공장을 처분하고 이제는 오직 농사와 조경수 재배 및 조경 공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도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 임야의 임목들을 보면 별로 용재적 가치가 없는 구부러지고 작달만한 소나무 단순림이 대부분이다. 이런 실정이니 구입당시인 1960년대에는 오죽하였으랴 그야말로 소득하나 없는 산지였던 것이다. 이런 산지를 지금은 그야말로 산지 개발이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멋진 조경수 농장으로 일부는 과수원으로 일부는 조경공원으로 각종 쉼터와 운동시설을 겸한 건강 휴식처로 탈바꿈 하였다.

재력이 있어서 그만큼 투자를 하면 누군들 못할 거냐고 할지 모르지마는 이곳 농장은 정말로 특이 했다. 우리

가 흔히 산지에 조경수 재배를 할라치면 벌채를 하고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계단식이나 혹은 평탄 작업을 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곳은 산림내 자생 소나무림을 간벌작업을 한 후, 그중에서 모양이 좋은 소나무만 계속 손질하여 멋진 소나무 조경수로 가꾸어 놓았고 그 간벌한 사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난대 수종인 목서류, 가시나무류, 동백나무등 수하식재에 적합한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도로 절개지나 급경사지등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피복은 물론 조경용으로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간벌한 나무는 파쇄기를 구입하여 전량 파쇄한 후 다시 산지에 살포하여 퇴비화 하고, 굵은 나무는 관리사에 지어 놓은 황토방의 화목으로 이용하여 연중 온돌찜질방을 데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 농장전경



▲ 농장전경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요지음 인기 있는 소나무 조경수를 가꾸어 놓으니 우선 이 식비용이 들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는데 따른 산사태나 토사유출의 염려가 없고 제자리에서 크니 무엇보다 더 싱싱하고 간벌 공간은 수하식재를 하여 토지를 최대한 활용 하는 그야말로 별로 용재가치가 없는 산림수종을 황금수종으로 바꾸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면적 54ha중 5ha는 1980년대부터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지금 한창 수확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자기네 단감은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신다.

계곡부의 평탄지와 산림내 완경사지에는 주로 향나무를 모양있게 재배하고 특히 수고 10m가 넘는 멋진 금송들은 이곳 농장에서 가장 아끼고 대표하는 수종으로 멀리서 보아도 역시 멋지고 싱싱함이 풍겨 나왔다.



▲ 소나무 농장전경



▲ 농장전경

대홍조경 이길영 사장은 1992년부터 한국조경수협회에 가입하여 현재 본회 부회장으로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2006년에는 서부 경남 지역 조경수 유통 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성공적으로 완공 시켰으며 지역사회에서는 1982년부터 진주 축석로터리 클럽에 가입 회장과 진주지역 15개클럽 대표를 맡아 진주 청소년 돕기와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 돕기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농장관리사 건물내의 황토방에는 늘 아궁이에 장작불이 있고 바닥에 멍석을 깔아 놓아 언제나 찜질을 하고 국산차를 하루에도 몇 차례 즐겨 마시며, 관리사 앞에는 지리산 수력발전 시설지에서 나온 멋진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필리핀산 대나무로 원주민 움막 같이 만든 특이한 정자를 그대로 수입하여 운치 있게 꾸며 놓았으며, 향나무, 소나무 고목으로 멋을 낸 멋진 정원을 만들어 놓고 즐기는 여유로운 삶을 가져서 인가 1941년 생으로 70이 가까운 나이에 50대 못지않은 동안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부인 김정자(68세)여사 사이에 2남 2녀

와 손자 손녀 6명을 두고 남부럽지 않는 다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남은여생을 현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농장안 산속 중턱에 자리 잡은 옛날 선녀가 하강하여 베를 놓고 베를 짜던 곳이란 전설이 있는 바위. 커다란 동굴형 바위 아니 반대편에서 보면 커다란 석문같은 바위산 일대를 놀이 시설로 만들기 위해 현재 대형 석재를 실어 나르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명실공이 조경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공간으로 또한 지속적인 임야의 소득원 개발지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포부이다. 🌳